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음 7월 25일 丙戌)

Table of horoscopes for the da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500만명 목표로 찍었어요”

영화 ‘사도’ 이준익 감독...오는 16일 개봉 송강호 “암살·베테랑 기운 받길 바래” 문근영 9년만에 스크린 복귀 ‘관심’



이준익 감독

두 영화의 (홍행) 기운을 받길 바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영화에서 점점 광적으로 변모해가는 외로운 ‘사도’로 분한 유아인은 실제 돌 바닥에 머리를 찰는 열연으로 이마에 피멍이 들기도 했다.

한국영화 ‘사도’를 연출한 이준익 감독이 목표 관객 수가 500만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사도’ 시사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준익 감독을 비롯해 배우 송강호, 유아인, 문근영, 김해숙, 전혜진이 참석했다.

이준익 감독은 “사실 영화가 크랭크인 할 때 스태프와 배우들과 함께 제법 관객 수 500만명만 되면 좋겠다고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사도’는 56년에 걸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8일간 모습에 집중해 펼쳐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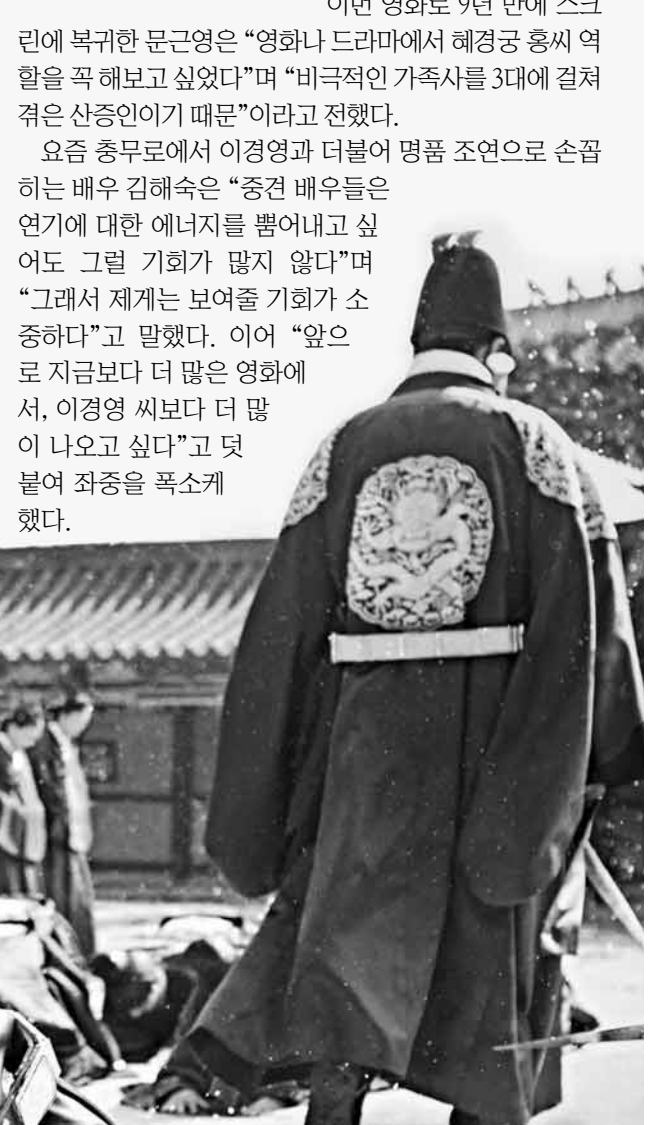
이 감독은 “사도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지만, 보편적인 심리와 감정으로 영화를 찍 채웠다”고 소개했다.

영조 대왕을 연기한 송강호는 “이 영화의 정체성은 정통사극의 면모를 지향한 데 있다”며 “왕이라는 신입견과 고정관념의 틀에 박히지 않고 한 인간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연기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송강호는 “우리 영화 출연진을 보면 암살도 보이고 베테랑도 보인다”며 “영화 ‘사도’가 부디 소개했다.

영조 대왕을 연기한 송강호는 “이 영화의 정체성은 정통사극의 면모를 지향한 데 있다”며 “왕이라는 신입견과 고정관념의 틀에 박히지 않고 한 인간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연기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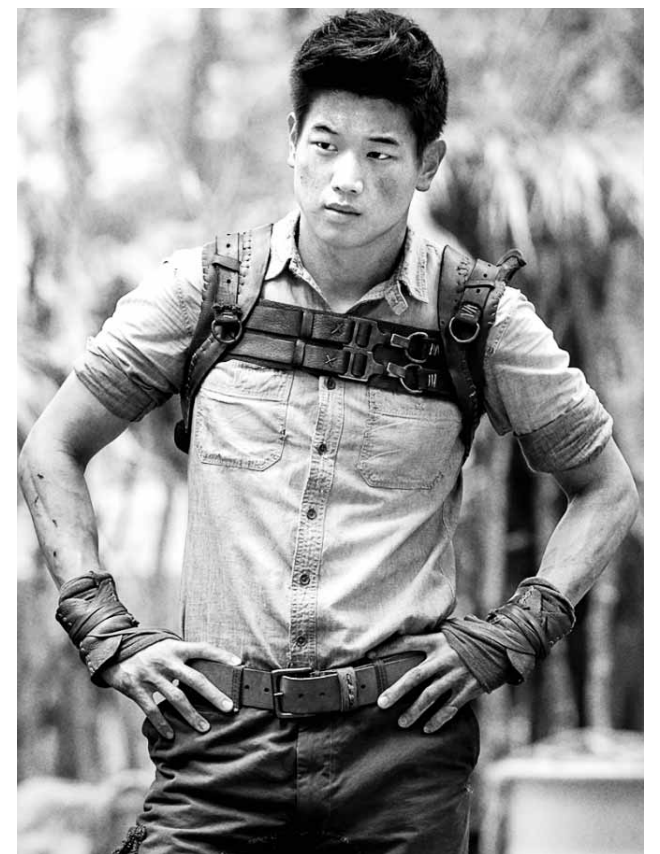
송강호는 “우리 영화 출연진을 보면 암살도 보이고 베테랑도 보인다”며 “영화 ‘사도’가 부디 소개했다.



“한국계 배우라 자랑스럽고 책임감 느껴”

영화 ‘메이즈 러너’ 출연 이기홍

할리우드를 이끌어 갈 차세대 한국계 배우로 주목받는 이기홍(29)이 미국에서 한국계 배우로 살아가는 소감을 전했다. 이기홍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영화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 (이하 메이즈 러너) 대한 기자회견에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영화에서 한국계 배우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했다. ‘메이즈 러너2’는 미로를 탈출한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조직 ‘위키드’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공상과학(SF) 액션 스릴러 영화다. 국내에서 오는 17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기홍은 이번 영화에서 남다른 기억력과 체력으로 ‘러너’들을 이끌어 갈만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미국 연예지 피플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4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기홍은 “영화에서 남성적이고 강한 역할을 맡게 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할리우드가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홍을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재능있는 배우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귀엽다”고 칭찬했다.

영화 흥보 차 함께 내한한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25)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짝사랑의 열병에 빠진 귀여운 소년으로 사랑을 받았던 아역 배우 출신이다. 이번 영화에서는 훌쩍 성장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기홍을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재능있는 배우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귀엽다”고 칭찬했다.

이기홍은 “영화에서 남성적이고 강한 역할을 맡게 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할리우드가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홍을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재능있는 배우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귀엽다”고 칭찬했다.

영화 ‘앤트맨’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 돌파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물 ‘앤트맨’이 지난 3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나흘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 배급사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6일 ‘앤트맨’의 관객 수가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마블 시리즈 영화 가운데 개봉 5일째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아이언맨’, ‘토르 : 다크 월드’ 보다 빠른 속도다.

‘앤트맨’은 전과 경력이 있으나 딸을 위해 평범한 가정으로 살기로 한 스콧(폴 루드)이 행크 펴 박사(마이크를 더글라스)로부터 세상을 구할 영웅이 돼 달라는 제안을 받고서 마주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렸다.

